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나주 핫 플레이스’로 우뚝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석 달 만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문화와 체육, 교육이 어우러진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에 이어 최근에는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출범이 나주시 역시 비약적인 발전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면적 4475㎡, 연면적 2만 1091㎡로 조성됐으며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실(전시실)과 세미나실, 청년창업공간,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청춘놀이터 등 문화와 체육, 교육 기능이 결합한 복합 공간을 갖추

3월 개관 후 문화·체육·교육 기능 결합 삶의 질 향상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운영...상생 핵심도시 위상

고 있다.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총사업비 68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국비 190억원과 전남도 50억원, 광주시 50억원, 시비 390억원이 투입돼 전국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수영장의 경우 하루 평균 600여명, 평생학습관과 청소년문화센터 100여명을 합쳐 하루평균 1000여명이 이곳을 이용하면서 나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가족단위 이용객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배움, 소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건물 4층에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미래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나주시가 받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건물 4층에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미래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나주시가 받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와 실무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급격한 미래 성

장사업과 연계해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의 대표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청춘놀이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청춘놀이터까지 운영되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체육,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나주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와 실무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가 지난 3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전시실)과 세미나실, 청년창업공간,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센터, 청춘놀이터 등 문화와 체육, 교육 기능이 결합한 복합 공간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통기타 교실(위), 매트필라테스교실 모습. 사진제공=나주시청

영광, 민선 9기 가동 대비 핵심 전략사업 현안 논의



장세일 영광군수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영광군청

군정 보고회...RE100 산단 등 27개 사업 집중점검

영광군이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현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정 대회의실에서 군정 주요현안 보고회를 개최, 장세일 군수의 직무 복귀 이후 처음으로 종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각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군정 주요 현안 27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광지역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

략사업과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이 폭넓게 논의됐다.

주요 보고사업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 대응 전략을 비롯해 군민과의 약속인 에너지 기본소득 완성, 청정수소 특화단지 조성, 공도 대응, RE100 산업단지 조성,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 등 영광군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행정통합 대응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자치 출범 이후 영광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발굴, 전략사업 확보, 제

정 인센티브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햇빛바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준비 상황과 함께 청정수소 특화단지 공모 대응,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미래 산업 육성방안이 보고됐다.

장세일 군수는 "행정통합 대응, 에너지 기본소득, 청정수소 특화단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은 한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영광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군민만 바라보며 함께 뛰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지금이 제철' 곡성멜론 30% 특별전 운영

곡성물, 22일까지 곡성농협 등 참여

곡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이 오는 22일까지 '지금이 제철, 곡성멜론 30% 특별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전은 집중 출하 시기에 맞춰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곡성멜론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제철 멜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에는 곡성멜론, 곡성농협, 대신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고품질 곡성멜론을 선보인다. 할인 혜택은 참여업체 자체 할인 15%와 곡성군 지원 15%를 더해 총 30% 할인으로 진행된다. 곡성물 회원은 1인 2매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1매당 최대 3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곡성멜론은 섬진강변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 큰 일교차 속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진한 향이 특징이다. 특히 1당굴 1과일 생산 방식으로 영양분을 집중시키고, 비파과 당도 선별을 통해 고품질 멜론을 전국에 출하하며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곡성멜론은 202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제 112호)를 국내 멜론 산지 최초로 등록하며 품질과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곡성물은 이번 특별전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리뷰 작성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후기 쓰는 재미, 쿠폰 받는 기쁨' 이벤트도 운영한다. 곡성물 상품 구매 후 텍스트 리뷰를 작성하면 500원, 포토 리뷰를 작성하면 1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쿠폰은 매주 금요일 일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멜론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철 멜론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도록 특별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라도 곡성물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함평 '한국 춘란' 특화산업 육성 재배기술교육 프로그램 첫 개설

함평군이 한국 춘란 재배 기술 보급과 난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6주간 함평난문화센터에서 '2026년 한국 춘란 재배 및 유통 활성화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를 통해 축적해 온 난(蘭)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한국 춘란의 가치와 재배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춘란 기초 상식 △춘란의 생리 및 생육환경 △분갈이 및 용토 활용 △관수 및 비료 관리 △염예·화예품 관리 △종합 관리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7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함평난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 춘란에 관심 있는 함평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함평군청 산림공원과 생태공원팀(061-320-2864)에 선착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선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택곤 함평군 산림공원과장은 "한국 춘란은 단순한 취미 식물을 넘어 문화와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지역 특화 자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군민이 난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여수 밤바다 즐겨요" 동백 나이트 스탬프 투어

미션 수행자 선착순 1000명 소비쿠폰 제공

여수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동백 나이트 스탬프 투어'를 선보인다.

'동백 나이트 스탬프 투어'는 해양공원, 오토캠핑 등 여수의 대표 야간관광지를 둘러보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기존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는 '여수엔' 앱 또는 관광안내소와 주요 관광지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나만의 영화 제목 만들기', '밤바다 포토 인증'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영화 한 편을 완성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6~7월, 8~9월, 10~11월에는 계절별 특색을 반영한 시즌형 미션과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방문 시기마다 색다른 야간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션 완료자 중 선착순 1000명에게는 지역 내 제휴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시는 앞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아 야간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백 나이트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이 여수의 밤을 절묘하게 즐기는 참여형 콘텐츠다"며 "앞으로도 여수만의 야간 감성과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암,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집중 발굴

보건·복지·주거 등 서비스 연계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이 6월 한 달간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발굴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조기에 찾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굴 대상은 고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적·뇌병변 심한 장애인이다.

군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

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과 욕구조사를 거쳐 보건·복지·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추진단은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통합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들으며 사업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나주, 청소차량 안전장치 강화

후방 LED 안전표지판 설치

나주시가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강화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청소차량에 '후방 LED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

후방 LED 안전표지판은 청소차량 후면에 부착해 수거 작업 시 정차와 서행 등 차량 운행 상태를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안전장치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종량제봉투 수거 차량 등 중·대형 청소차량은 물론 골목길 수거에 투입되는 소형 청소차량까지 총 37대에 후방 LED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